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년 3월 6일 금요일 15:00-16:30	기 록 자	최가해
참석자	김용운 위원장, 방영희 부위원장, 김수정 위원, 정승원 위원, 함유미 위원, 이윤주 위원(박주광 주무관 동반참석), 윤상은 위원, 이광수 위원, 최가해 위원(간사)	장 소	복지관 4층 소회의실
주요 안건	제1차 운영자문위원회 안건		

회의내용		
	주요 안건	**1안 - 보호작업장 2025년도 사업실적 보고 건** **2안 - 보호작업장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건** **3안 - 보호작업장 2026년도 지원사업 보고 건**
	보고자 (최가해 간사)	**1안~3안 보고**
	김용운 원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보호작업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더욱 성장한 것 같고, 특히 홍보면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업들을 진행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유미 위원	보고주신 내용 중에 보나커피 로스팅 훈련 쪽에서, 이용인만 훈련을 하는 것인지 보호자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업강좌도 열어 주셔서 많은 보호자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	일단은 현재 보나커피 로스팅수업은 소수 관심을 보이는 근로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보다 훨씬 배우기가 까다롭고 전문분야라 비장애인분들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작업장의 경우도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장광영 이용인이 로스팅에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라 커피 볶을 때 소리로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워서 걱정했었는데, 다른 감각들이 기민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원두들의 일부도 장광영 이용인이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 위원장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원두가 커피향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원두를 좋은 원두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재료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적절하게 볶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	정승원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2025년 매출과 이용인 급여지급부분에서 매출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이용인 급여지급 부분은 25년도 것만 적어주셔서, 혹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광수 위원	네, 이용인 급여부분에서는 근로장애인분들의 퇴사에 따라서 총지급액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자	전년도 대비 총지급액은 상향됐지만, 저희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 지급액은 늘기는 합니다.
	이광수 위원	작년에 고임금을 받으시던 배송업무 해주시던 근로장애인분이 퇴사를 하셔서, 공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광명시 소재에 있어야하고, 장애등록을 하신 1종 면허에 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서, 채용공고 내고 계속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더라도 60세 이상분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시니, 채용대상 연령대를 높여서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박주광 위원	지금 보나카페가 지점이 몇 호점까지 있었죠? 혹시 올해 보나카페 지점을 늘리거나 줄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광수 위원	네, 현재 보나카페는 9개 지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나카페를 늘리기에는 자금이 조금 모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늘릴 준비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광명도서관점 카페가 지금 6월 말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그쪽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식당처럼 요리를 해서 좀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용운 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이광수 위원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즉석 김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그렇게 요청을 희망하시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편의점 한 강라면 기계나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즉석식품 정도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계약 여부를 확정짓자고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김수정	광명도서관 자체가 이용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예전에 도서관 내 식

	위원	당이 운영이 안돼서 폐쇄하고, 그 공간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전체적인 공사나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측에서 그런 문제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주 위원	지금 근데 라면이나 기타 부식류가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광수 위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도서관장님의 의사가 이왕 할 거면 아예 조리할 수 있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어중간하면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준비하던 중에 멈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이 도서관도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용인 중에 도서관이 식사할 만한 게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그렇죠. 도서관이 주변 상권이나 주변에 식당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하긴 하죠.
	박주광 위원	그러면 작업장은 광명도서관점 재계약을 희망하시는 거죠?
	이광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용인분들의 일자리고,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정 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랑 이런 부분들을 다 투자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계약이 불발되면 그건 다 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철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비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윤주 위원	그럼 지금은 그냥 빵이랑 커피만 판매하고 있는 거고, 6월에 다시 재계약될 때 이제 조정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광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서관 담당 팀장님이랑 3월 말이나 4월부터라도 라면도 팔고, 만두나 과자 같은 것도 팔자 해서 저희는 다 찾아놓고 준비를 해놔서 구입해서 비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도서관장님께서 더 생각해보자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돼있어서 편의점처럼 판매는 가능하지만 직접제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보나카페 도서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결과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윤주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2025년도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줄었던데, 이유가 멀까요?
	이광수 위원	저희가 도예에서 줄어든 부분은 이제 도예 외부수업의 입금되는 시기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 하는데요. 학교에서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료를 매달매달 지급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해가 넘어가서 결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고, 임가공 하청의 경우 지금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까 일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령하고 납품하고를 직접가서 하고 있어서 그나마 물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청을 받으려고 업체를 개발하고 있으나, 하청 특성상 물건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생산이 아닌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윤주 위원	그럼 이번에 보조금 반환금은 얼마나 돼요?
	보고자	1억 6천정도 됩니다.
	이윤주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보고자	이제 그 1억 6천에서 1억 4천이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사업안내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직업훈련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용인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 한 분만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에서 작년 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있어서 그거 대비해 선생님들의 연장근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넉넉하게 측정해서 신청했던 부분이 예상대비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신청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1명분 인건비는 제하고, 연장근로 시간도 낮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육아휴직 들어간 선생님을 대신하여 대체근무자를 채용했는데, 호봉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차익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윤주 위원	지금 복지관은 거의 50억이 넘었고, 여기는 지금 예산이 12억인데, 12억 예산을 운영하면서 1억 6천이 남았다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법무과나 어디서든 우리가 생각 한 것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액이 남는 만큼 삭감한다는 기조에요. 잔액이 남더라도 집행 잔액이어야 돼요. 누가 봤을 때도 뭔가 하나를 통으로 못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수행하고 남은 잔액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1억 6척이라는 금액은 무슨 사업 하나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산 운영을 좀 더 지혜롭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광수 위원	연말쯤에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초과 근무 같은 경우 시간을 많이 줄여서 측정했고요. 추가채용예정이었던 직업훈련교사 1명분도 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셨던 선생님이 올해 다시 복직을 하실 겁니다.
	보고자	네,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다 인건비에 속해 있습니다.
	방영희 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은 예산에서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예산은 이제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는 우리는 사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랑 이제 계속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확정이 되면 이렇게 연말까지 끝까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인력들이 빠지면서 인거비가 줄어드는 걸로 우리가 추경 예산을 짜는데 보조금은 계속해서 그 금액일 때는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 드리는 거는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11억을 받았을 때 인건비 8억을 받고 3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추경이 들어가면 어차피 인건비가 줄어들면 8억으로 예산을 잡았던 보조금을 우리가 7억으로 줄이면 그 시에서도 그 돈을 또 다른 필요한 쪽에 쓸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윤주 위원	아, 보조금을 추경해서 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영희 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도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보조금을 조정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시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는 돈을 추경 예산을 다 인건비를 수정했는데, 보조금은 그대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금만 많아지는 경우가 돼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이게 도비 사업 매칭이에요. 시비 100%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26년도 예산을 통상적으로 25년도 6월이나 7월에 도에서 소요 예산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주거든요. 7월에 조사한 거를, 근데 이제 그걸 근거로 바탕해서 줬는데 인건비가 남잖아요. 남은 거를 보통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부족한 것에서 이제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6월 정도에 해요. 그래서 그때는 주셔야 돼요. 넘어서는 조정이 안돼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윤주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감액 추경은 안돼요. 막 추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미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이라는 거는

		이제 본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은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액 추경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주셔야 되는 거지 뒤에 가서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박영희 부위원장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1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감액 조정해서 이번 연도에는 1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1억을 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10억만 받은 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호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11억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억으로 신청했다가 다시 11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원래 11억이기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억을 끌고 가서 반납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윤주 위원	시에서도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영희 부위원장	그렇게 사유가 남는 인력 변동이라는 게 그런 조정을 한 번 하면 이렇게 반환금을 몇 천만 원씩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윤주 위원	사회복지 시설들은 처우가 좋다 안좋다 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은 그래도 기본적인 처우는 다 적용받는다고 보여 져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 자체로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현장인 곳들은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라나 국비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점점 조금씩 처우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 지지만, 시비 자체 센터들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1억 6천의 예산이 있으면 그분들 인건비 최저시급으로 받는데 그런데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중히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박주광 위원	마지막 궁금한 게 있는데 24년하고 25년 매출액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는 올라갈 텐데 근로장애인 분들 급여 주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었나요?
	이광수 위원	힘들죠. 저희도 아직까지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인건비랑 사업비랑 다 지출을 하면 매년 6천 7천 이월금으로 넘어오고는 있거든요. 저희 사업비에서 거기서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수익금

		이랑 지출이랑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금액이 그만큼 또 그다음에 이월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부족하지만 고용 장려금도 일부 급여로 채우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근로하고 있는 이용인들을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더 많이 팔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광 위원	근로장애인들 주당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광수 위원	지금 적게는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 다릅니다. 제빵실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셔서 일 3시간씩 근무를 하시고요. 이용인들 기능이라든지 이런 능력치나 건강 상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카페 훈련생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시더라도 근무하는 중에도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는 근로고, 그 이후에 몇 시간은 훈련이고 그렇게 운영되게 돼있습니다.
	이윤주 위원	이번에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남지 않았나요?
	보고자	기회수당같은 경우에는 9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일자리 분들은 다 빠지고 이제 훈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수당으로만 다 돌려가지고 일단 최대치로 맞춰놨는데, 훈련장애인 분들의 병가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입소하신 분들은 1개월 미만에는 지급을 못하게 돼있어서 집행하고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전원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더 이상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든 안건의 의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든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자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	이상으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자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